

009 ☆☆

■ 출제 예상

: ㄱ 순서 / 어법

- attraction 명소
- attract 끌어들이다
- for whatever reason 어떤 이유로든
- performer 연주자
- composer 작곡가
- genre 장르
- fit into ~에 꼭 들어맞다
- devise 고안하다
- identify 발견하다, 찾다
- appreciation (사람·물건의) 가치를 알기
- agenda (업무의) 예정표, 계획표
- a range of 여러, 다양한
- landmark 명소
- evident 명백한
- in part 부분적으로
- identity 정체성
- grave 묘, 무덤

■ 수능특강 영어 24강 4번

■ 여행자들이 음악 관련 도시를 가는 이유

: 개인적 취향이나 문화적 또는 국가적 연관성의 이유를 가짐!

Music tourism sites and attractions generally attract two kinds of visitors: those particularly drawn for whatever reason to the memory or music of a particular performer, composer or genre (most obvious for festivals), and those who are there because the place fits into an itinerary devised for other reasons or because the visit is likely to be enjoyable.



Thus, at Abbey Road, a place identified in many general guidebooks, most visitors were there because they had some appreciation of the Beatles' music, but others were there simply because it was part of an agenda that included a range of obvious London landmarks.



Particular links to music sites are, however, much more idiosyncratic and dependent on personal musical taste. Wider cultural and national links may also be evident.



New Orleans and the Cajun region are popular with French tourists. For French tourists, travel to New Orleans in part allows an experience of Francophone identities in the New World, just as it is more likely to be Americans who visit Jim Morrison's grave in Paris.

*idiosyncratic (개인에게) 특유한 **Francophone 프랑스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 AYDENOTE

일반적으로 음악 관광지외 명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음악에 어떤 이유로든 특별히 끌리는(= drawn) 사람들과 일정표(= itinerary)와 맞아떨어져서 방문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 그러므로, Abbey Road 방문은 Beatles의 음악 가치를 알거나 예정된 일정으로 인해 방문하게 됨!

↓ 하지만 (이러한 방문은 = 음악 관광지와 연관성은) 개인적 음악 취향(= personal musical taste) 또는 문화적, 국가적 연관성(= cultural and national links)에서 비롯된다!

↓ 프랑스 관광객에게 New Orleans 여행은 신세계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정체성 경험(= experience of Francophone identities)을 가능하게 함!

음악 관광지와 명소들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데, 그것은 (가장 두드러지기는 축제에서의) 특정 연주자, 작곡가 또는 장르에 대한 기억이나 음악에 어떤 이유로든 특별히 끌리는 사람들과 그 장소가 다른 이유로 계획된 여행 일정표와 맞아떨어지거나 혹은 그 방문이 즐거울 것 같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많은 일반 여행안내서에서 발견되는 장소인 Abbey Road에서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Beatles의 음악의 가치를 조금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만, 다른 방문객들은 단순히 여러 확실한 London의 명소들을 포함하는 예정된 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음악 관광지와 특별한 연관성은 훨씬 더 개인 특유의 것이고 개인적인 음악적 취향에 의존한다. 더 넓은 문화적, 국가적 연관성 또한 명백할 수 있다. New Orleans와 Cajun 지역은 프랑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프랑스 관광객에게 있어 New Orleans 여행은, 마치 파리에 있는 Jim Morrison의 묘를 방문하는 것이 미국인일 가능성이 더 높듯이, 부분적으로 신세계(아메리카)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정체성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NOTE

■ 어법

a place / identified(= 수동 분사) ~

*a place와의 관계를 볼 것! = 장소는 장소인데 발견되는/볼 수 있는 ~

it was part of an agenda that included ~

*it ~ that 강조구문 : it be + 강조어구 + that + 나머지

011 ☆☆☆

■ 출제 예상

: [순서]

■ 수능특강 영어 Test 1 15번

■ 전문가의 지식

: 학자들의 머릿속이 지식이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 accessible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 scholarship 학식, 학문, 장학금
- dedicated 헌신적인
- wipe out ~을 몰살[전멸]시키다
- expert 전문가(인)
- conference 학술회의
- reconstruct 복원하다, 재구성하다
- expertise 전문 지식

It is very important in the information ag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and information. **What is accessible by computer and, indeed, what is published in the journals is information. Knowledge is something that has to be constructed in the mind of the expert reader.** This is what scholarship is about. Information is, these days, instantly accessible, but **knowledge still takes years of dedicated study to acquire.** Imagine that a freak accident wiped out an entire field of experts on a subject while all were attending a conference. How long would it take to reconstruct expertise in the field so that research could once again progress? It would probably take many years, despite the fact that their research was all published. [To take another example, **what do producers of science documentaries for television programmes do when they are researching their subjects?**] They **talk to the experts** rather than trying to read the journals. Quite rightly, as that is **the only place that knowledge is to be found — inside the heads of the scholars.**

*freak 매우 이상한

■ AYDENOTE

정보는 컴퓨터나 학술지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 vs. **지식은 전문가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되어야 하는 것(= to be constructed in the mind of the expert reader)!**

↓

[프로듀서들이 주제를 조사할(= researching their subjects) 때 무엇을 하는가?]

↓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눔! (왜?) **학자들(= 전문가)의 머릿속이 지식이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곳 이니까(= the only place that knowledge is to be found)!**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컴퓨터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좀 더 확실히 말하면 학술지에 게재된 것은 정보이다. 지식은 전문가 독자의 마음속에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오늘날 정보는 즉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지식은 습득하려면 여전히 수년간의 헌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주제에 관한 분야 전체의 전문가가 모두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매우 이상한 사고로 인해 몰살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또다시 연구가 진척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복원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그들의 연구가 모두 출간되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 해가 걸릴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용 과학 다큐멘터리의 프로듀서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조사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학술지를 읽으려 하기보다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매우 당연한 일인데, 그곳, 즉 학자들의 머릿속이 지식이 발견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다.

NOTE

014 ☆☆

- 수능특강 영어 Test 2 5번
- 빅데이터에 있어서 중요한 예술과 인문학 : 이야기의 창출과 소통이라는 지식의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

The efficient and valuable use of big data needs the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and in the right way. **Big data is powerful only if it is generated, combined, or supported by the creation of strong narratives, organizationally and contextually framed.** This means that the big data has to be "thick," i.e., not only quantitatively but most importantly qualitatively relevant. **The arts/humanities are important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big data because they dominate the knowledge domains of the creation and communication of narratives as well as meanings of human life.** In other words, the arts and humanities are **capable of embedding into big data the aesthetic human-based dimensions that ultimately make them relevant** in order to identify, address, and solve key questions for sustainable societ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wealth creation. The arts and humanities are essential in order to **make big data, analytics, data min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significant** for stakeholders.

*embed 끼워 넣다, 단단히 박아 넣다 **stakeholder 이해 당사자, 주주

- 출제 예상 : 어법

- generate 생성하다
- narrative 이야기, 서술 기법
- organizationally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 contextually 맥락에 맞게, 문맥상으로
- frame (틀에 따라) 만들다
- thick 심층적인
- i.e. 즉, 다시 말해(= id est)
- quantitatively 양적으로
- relevant 유의미한, 관련 있는
- humanities 인문학(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영역)
- transformation 변환, 변형
- dominate 지배하다
- domain 영역
- aesthetic 미적인
- dimension 영역, 국면, 양상
- ultimately 궁극적으로, 결국
- address 다루다
-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 societal 사회적인, 사회의
- analytics 분석학
- data mining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 데이터 마이닝(대규모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것)

빅데이터의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사용은 적절한 질문을 적절한 방식으로 던지는 개인과 조직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빅데이터는 유기적으로 그리고 맥락에 맞게 만들어진 강력한 이야기의 창출에 의해 생성되고 조합되고 혹은 지탱될 때에만 강력하다. 이것은 빅데이터가 '심층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양적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질적으로도 유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문학은 디지털 변환과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데 그것이 인간 삶의 의미뿐 아니라 이야기의 창출과 소통이라는 지식의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술과 인문학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부의 지속 가능한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을 파악하고, 다루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빅데이터가 관련성을 가지게 하는 인간에 기반한 미적인 영역을 빅데이터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학, 데이터마이닝, 그리고 디지털 변환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중요하도록 만들기 위해 예술과 인문학은 필수적이다.

NOTE

- 어법
- ⑤ This ④ means ③ that(= 접속사) ~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구조 : ⑤ the big data ④ has to be ③ thick
- ⑤ they(= the arts/humanities) + ④ dominate ~ *S가 지배하는 것! 수일치 및 태 주의!
- ④ make ③ them ② relevant / in order to identify ~ (= ~하기 위해 = 부사구)
*make 뒤에 OC와 to부정사구가 있다고 해서 O가 꼭 가목적어 it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make ③ big data ~ transformation ② significant(= 형용사) ~